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결들이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결들이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결들이다

완성된 이름

결들이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남이 하는 일이나 말을 좀 거들어 준다. '결들다'의 사동사.

요약 연대표

표기	17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것드리다				
결들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남이 하는 일이나 말을 좀 거들어 준다. '결들다'의 사동사.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결들이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남이 하는 일이나 말을 좀 거들어 준다. ‘결들다’의 사동사.



결들이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결들이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갇드리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결들이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갇드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결들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갇들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갇드리다

17세기19세기20세기

- 결들이다

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것드리-, 결들이-, 것들이-

↳ 결들이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결들이다’의 옛말 ‘것드리다’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것드리-’는 곁에서 함께 들어주다, 남이 하는 일이나 말을 좀 거들어 주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것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표기 방식과 특징

‘것드리-’는 ‘결들이-’에서 종성 위치에서 ‘ㄷ’을 ‘ㅅ’으로 적는 받침 표기와 연철 표기 등 당시의 표기 방법이 적용된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원형을 밝혀 적은 ‘결들이-’는 19세기에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표기 방식과 특징

20세기에 ‘것드리-’를 분철 표기한 ‘것들이-’도 나타났다.

📖 문헌 속의 결들이다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겹드리-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겹드리-

출처 17세기 전반 진주하씨묘출토언간 35

용례 01

66 문헌 용례

안주는 싱치과 념통과 두 가지로써 혼 그루세 겹드려 노케 후소.

現代어 풀이

안주는 생뽕고기와 염통 두 가지로 한 그릇에 곁들여 놓게 하시오.

19세기 곁들이-, 겹드리-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곁들이-, 겹드리-

출처 1838 의성김씨학봉종가언간18

용례 02

66 문헌 용례

밤 혼 말 대초 혼 말 문어 전복이나 오리고 포나 다섯 오리식 곁들여.

現代어 풀이

밤 한 말, 대추 한 말, 문어, 전복이나 울리고 포나 다섯 올씩 곁들여.

출처 1840 춘향전 단:11ㄴ

용례 03

66 문헌 용례

도쳐수의 국화주 니적선의 포도주 쇼동파의 죽엽주 안기쌍의 주하주 온갓 술 겹드리고.

現代어 풀이

도 처사의 국화주, 이 적선의 포도주, 쇼동파의 죽엽주, 안기쌍의 자하주 등 온갓 술 곁들이고.

출처 1869 규합총서 18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마른 정과에 껌드려 쓰려면 국을 조려 돈돈헌 기운이 잇게 하고.

ㄷ ㅅ 현대어 풀이

마른 정과에 껌들여 쓰려면 국을 조려서 단단한 기운이 있게 하고.

20세기 껌드려-, 껌들이-, 껌들이-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껌드려-, 껌들이-, 껌들이-

출처 1908 철세계 41

용례 05

66 문헌 용례

전면은 방방이 금박으로 록색을 껌드려 쏘이고.

ㄷ ㅅ 현대어 풀이

전면은 방방마다 금박으로 녹색을 껌들여 꾸미고.

출처 1908 귀의성 하:5

용례 06

66 문헌 용례

영성훈 바구니 속에, 빨곤 고기 하얀 두부, 파란 파를 요리조리 껌드려서.

ㄷ ㅅ 현대어 풀이

영성한 바구니 속에 빨간 고기, 하얀 두부, 파란 파를 요리조리 껌들여서.

출처 1920 동아일보 8월 5일 3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더운 밥과 북어 찢 것과 외지 등의 반찬을 껌들이어서 집집마다 각각 식구의 비례대로 분배하
얏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명란젓은 몽푹몽푹하게 썰어 담고 참기름 치고 고추가루 뿌리고 파대가리를 채 처 곁들여 노 습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곁들이다의 보충 설명

‘곁들다’는 19세기부터 ‘곁들다’의 형태로 나타나 ‘곁들이다’보다 두 세기 늦게서야 확인된다. [예] 곁들다 [傍助] <1896 국한 회어 곤:22>

곁들이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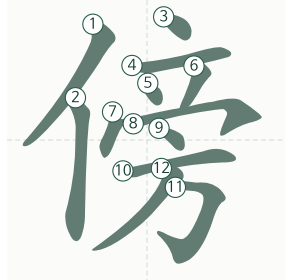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곁들이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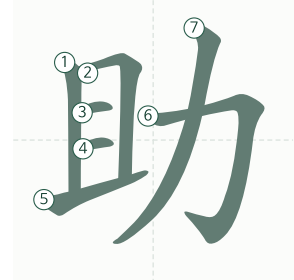
뜻·음 곁 방
총 12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傍/

助

뜻·음 도울 조
총 7획 · 부수 力



hanja.wordrow.kr/한자/助/